



KCPC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제자들

10월호

OCTOBER 2014 / VOL 31 NO1

04 특집
기복신앙을 넘어서06 특집
Missional Life (2)07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덕 목사08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선 전도사09 사역을 마치고
옥신혜 선교사

• 발행인: 류응렬 • 편집인: 허광수 • 편집장: 최하영
 • 발행처: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홍보출판부
 • 이메일: jeja@kcpc.org

The Disciples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Raising the Next Generation as Disciples of Christ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며 새 회계연도의 표어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류응렬 담임 목사는 부임 이후 설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이번에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참다운 제자로 세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이 표어에 담겨있다. 우리 교회는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모토 아래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작년 표어에 이어 올해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였다.

류응렬 담임 목사는 새 회계연도 첫 설교를 통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라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럽 교회의 개탄스런 현실을 예로 들면서,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류응렬 담임 목사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경하는 이원상 목사님과 신실하신 노창수 목사님의 헌신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왔으나, 아무리 찬란해도 과거는 우리가 거처가야 할 정거장이지 멈추어야 할 종착역이 아닙니다."라며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사역원(영아부, 유아부, k-1, 2-3학년, 4-6학년), 청소년사역원(All Stars-영어 중등부, Joshua Generation-영어 고등부, Agape-한어 중고등부), 청년사역원(다솜, 강한용사, Salt & Light-영어 청년부)이 있다. 이들이 앞으

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대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고 류응렬 담임 목사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부모들에게 당부하였다.

어린이사역원에서는 지난 4-6학년 오픈하우스에서 참석한 부모들에게 L.I.T. 사역을 소개하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역은, 영적 훈련과 사역 훈련을 통해 사춘기 직전의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가족과 학교, 커뮤니티와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 회계연도의 표어에 맞추어 어린이사역원, 청소년사역원, 청년사역원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참다운 제자로 세워 나갈 지를 당회와 함께 담당 교역자와 장로, 부장, 임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에 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제자들**

☞ 교회소식

과감한 혁신으로 활력을 되찾아가는 Salt & Light



이에 Salt & Light은 과감하게 오전 10시로 시간을 조정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을 옮기고 나서 다른 일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더해지고, 부모

그동안 목회자의 공석으로, 예배 시간과 장소 등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S&L이 이제 젊은 목회자 권단열 목사의 지휘 아래 과감한 혁신으로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오후 2시 반에 시작했던 S&L 예배는 오전에 집중된 다른 예배와 동떨어져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같은 시간대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며,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비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생활에 앞서 예배가 우선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기에 영어권 대학생들이 적당한 예배 시간을 찾기 힘들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향한 소속감도 더 깊어졌다고 전한다.

한편, 예배 장소를 Well로 옮기고 나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교회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열심으로 Well은 예배 드리기에 좋은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예배 장소를 워드 채플에서 Well로 옮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생과 젊은층, 그리고 기혼 부부들에게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는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주제: "복음에 춤추다"

강사: 이규현 목사 (현 부산 수영로교회 담임)

집회 시간:

11월 6일 (목)~저녁 집회 8시

11월 7일 (금)~새벽 집회 5시 & 저녁 집회 8시

11월 8일 (토)~새벽 집회 6시 30분 & 저녁 집회 7시

11월 9일 (주일)~주일 대예배 시



강사 소개:

이규현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 Min.) 과정을 수료했다. 호주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를 개척해 20년간 섬기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워드 채플에서의 예배도 좋았지만 다른 예배 장소와 너무 멀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Well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더 눈에 잘 띄는 뿐만 아니라 접근도 쉬워졌다.

둘째는 Salt & Light의 예배가 JG 예배로 부드럽게 전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사가 두 예배에서 봉사하고 있

기에 예배 사이의 오가는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악기와 장비를 두 예배에 함께 나누어야 하는 찬양팀의 셋업도 훨씬 간편해졌다.

권단열 목사는 더 깊어진 믿음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도 발전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취재/샘강

순장, 순모 영성수련회

성경적인 교회의 순모임을 향한 영적 무장

올해도 예외 없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한 소그룹 리더들의 영성 훈련이 지난 9월 13일, 토요일에 프론트로알에 있는 4H수양관에서 있었다. 연합순장 부부와 순장 부부, 그리고 류응렬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수련회는 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 집중하였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소그룹 리더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모임 2주 전부터 시작된 사전 등록에는 70여 명이 등록하여, 준비하는 부서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주었다. 준비한 200여 명분의 아침식사가 부족하였고, 예약한 교회 버스가 부족하여 급히 두 대를 더



동원할 정도로 예년에 비해 참여도가 높았다.

박성호 목사가 이끄는 교역자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를 통해 류응렬 목사는 성경적인 교회의 순모임을 위해 순장과 목사는 한 마음, 한 철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순장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제

시했다. 이어서 부교역자들이 인도하는 기도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 순모임, 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목양사역 담당 정준성 목사는 순모임에서 모이는 숫자보다 영혼 구원과 성화의 열매가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의 순모임이 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공동체별

모임을 통해 새 회계연도에 순모임이 나아갈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건의사항도 접수했다.

가늘게 내리는 비로 인해 조금은 서늘한 공기가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데 더 없이 좋은 환경이 허락되었다. 이번 영성수련회의 특징은 가능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집중 할애하였고, 자녀를 동반한 순장을 위해 청소년부의 협조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래층에서 별도로 진행하였다.

늘 변함없이 섬기는 훈련부원들의 수고로 인해 때마다 풍성한 간식이 제공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아울러 교회 미디어팀에서는 전날 음향장비를 미리 설치하여 당일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였다.

취재/나동현

목회칼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마침표가 되는 인생

이전에 한 후배가 곧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다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문제를 제가 무엇이라고 한순간에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는 큰 종이를 하나 꺼내어 그 안에 예수라고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예수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는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이 그 밖의 모든 것보다 크게 보이면 일어나라고. 별것 아닌 처방인데도 이 친구는 혼자 묵상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결국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교수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별것 아닌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 쓰고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글자밖에 되지 않는 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동그라미 밖의 모든 것보다, 동그라미 밖의 모든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것은 별것 아닌 글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위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2012년 Christianity Today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서 올해에 단 한 권의 책을 읽을 생각이라면 이 책을 읽으라고 극찬한 책이 있습니다. Jesus +

Nothing = Everything이라는 책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인 톨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차비진 목사님은 제임스 케네디가 목회했던 전도폭발로 유명한 코렐릿지 교회의 2대 담임목사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무엇인 줄 알고 사역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자신이 시도한 Something은 모두 Nothing이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Everything이 되었다.” 한국어로 이 책은 Jesus All로 번역되었습니다. Jesus All!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 하나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이름 하나에 새 힘이 솟는 그런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럴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땅 위에서도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끌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류응렬 목사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마음이 이끌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눈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있고 영광스러운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호하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지고한 기쁨이란 이럴 때 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사라져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채워도 진정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말씀 훈련 시작



지난 9월 10일 수요일예배는 ‘훈련 사역 개강 예배’로 드렸다.

가을을 맞아 시작하는 말씀 훈련을 위해 드린 개강 예배에서 류응렬 담임 목사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류응렬 담임 목사는 이날 말씀을 통해 ‘성도를

훈련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제자가 되려면 참된 스승을 만나야 한다’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첫째, 은혜로 시작하고 둘째,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며 셋째,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개강 예배를 통해 11기 제자훈련과 10기 사역훈련, 2/7 제자훈련이 시작의 문을 열었고, 제자훈련생 48명(남자 17명, 여자 31명)과 사역훈련생 22명(남자 10명, 여자 12명)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약 10개월간의 훈련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취재/최하영

온 가족 가을 축제
Fall Family Festival

날짜: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시간: 오후 6시~9시 15분

입장료: 개봉하지 않은 사탕 한 봉지

(a sealed bag of candy or chocolate)

10월 31일에 있을 온 가족 가을 축제는 KCPC의 1-2-3 세대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가을 축제입니다. 음식, 문 바운스,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 찬양, 그리고 Peter Nestler의 진기명기 Jump Rope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 가을 축제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집

기복신앙을 넘어서

류응렬 목사

기복신앙이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나를 도와야 진정한 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받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믿음의 백성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미 받은 복의 감격을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연연하고 심지어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제시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것과 직결되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왜곡된 신앙의 형태와 설교와 가르침이 교회 안에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 글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기복적 요소들을 점검하여 진정한 성경적 축복이 무엇이며, 기복적인 신앙과 가르침을 극복할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들

복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듯이 한국 민족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복에 대해 강조한다. 물론 이 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강조되지만, 이 땅에서 얻는 축복도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제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복적인 요소들은 몇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상에서도 반드시 복을 누린다는 가르침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지상의 삶에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강조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되어 원하는 대학과 직장을 들어가고 범사에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마치 땅 위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

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눈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다.

둘째, 반드시 지상에서 외형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좋은 신앙으로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연결하기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런 기복신앙의 근거에는 성경에 대한 오해도 한몫 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3)의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직결하거나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의 말씀을 통해 십일조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하나의 시험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 신자는 땅 위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이라고 직결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경에는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 일생 주님을 기다린 후에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한 후 감옥에서 비운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난 세례 요한을 누가 복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여인이 낳은 아들 가운데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는 주님의 말은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보여준다.

셋째,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좀더 열심을 내라, 좀더 거룩하

기 위해 노력하라, 좀더 봉사하라고 가르친다. 신자 편에서 성실한 열심을 내고 부름에 합당한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책임이다.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신자의 모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진실한 반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조건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의 율법이요 종교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러한 기복적인 요소들은 때로 목회자들의 잘못된 설교와 신자들의 왜곡된 축복관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좀더 할 때 비로소 더 축복하시는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자세 여하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다는 주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복신앙을 넘어 성경적인 신앙으로

기복신앙을 넘어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적인 축복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지상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기복신앙의 잘못을 벗고 성경적인 신앙을 정착시키기 위해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신앙인에게 성경적인 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활동을 담은 책이다. 루터의 고백처럼 성경의 어느 곳을 찢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인류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모든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벗어난 지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

다. 기복신앙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성경이 인류를 위한 어떤 책임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둘째,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벗어난 가르침, 즉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이다. 기복신앙은 성경을 정직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본문을 이용한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주님이 나의 해석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실 때 비로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다.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해석은 주로 본문에 대한 정직한 분석 없이 적용을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논리다. 성경을 대할 때 적용은 본문과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의 의미를 벗어난 적용은 이미 성경적인 권위를 상실한 적용이다. 성경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과 적용 간의 순서가 중요하다. 모든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 편에서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은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친 후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기복신앙은 땅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좀더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되어 상대주의적 우위를 차지하려 달려가기 시작하면 성경도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늘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다. 땅 위의 모든 것을 모은다 해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님을 모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타인과 비교하여 좀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상대주의의 괴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넷째, 신앙인이란 지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인이란 밭은 비록 땅 위를 디디고 살지라도 마음은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잠시 지나가는 땅 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쉬운 삶은 아닐지라도 거룩한 하늘의 감격을 누리게 만드는 삶이다. 감옥 안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여전히 당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누릴 것 없었던 주님, 언제나 고난과 궁핍에 처한 주님이셨지만 하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워싱턴 기도회

사진으로 보는 Washington Prayer Gath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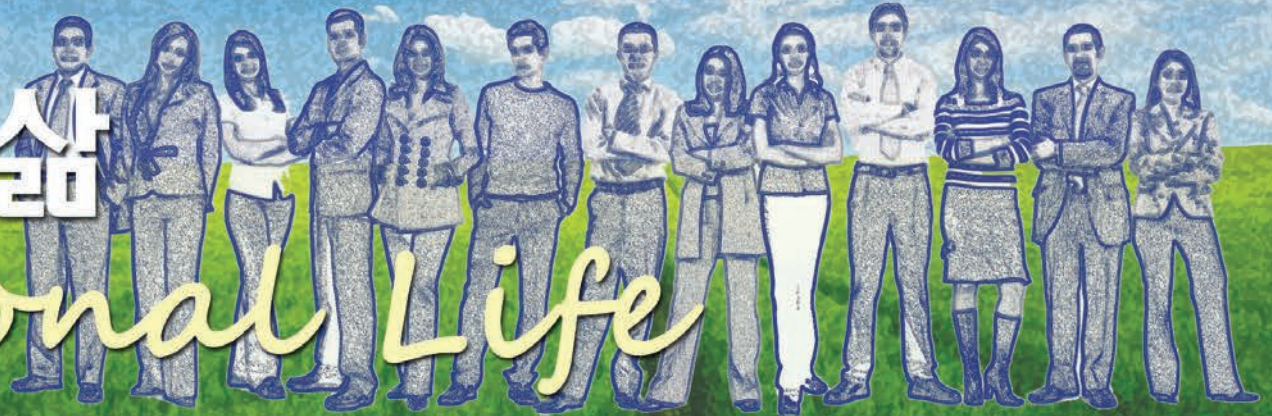
지난 10월 13일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는 McLean Bible Church와 이 지역 100여개 미국 교회와 함께 미국과 워싱턴 지역을 위하여 회개와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동참하였다.



특집: 선교적 삶(2)

선교적 삶

Missional Life



선교와 삶이 하나가 된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교적 삶(Missional Life)은 내 삶의 현장에서 '자비량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멀리 있는 외국인 선교지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곳을 선교지로 삼고, 선교사의 사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

선교사의 삶

선교사는 선교지에 오면 먼저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고 지역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한다.

이제, 내가 바로 여기에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하고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질문해 보자.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 동네,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심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물건을 살 때, 대화할 때, 심지어는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선교적 관점'에서 보고 행동한다. 선교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복음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목적과 실천이 함께 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

어느 간호대학에서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보는 데, 학생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맨 마지막에 엉뚱한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것은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였다.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청소하는 50대 여성을 본 적은 있었으나 그의 이름을 아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 문제가 점수에 포함되는지 질문했다. 교수님은 당연히 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청소 아주머니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수님은 바로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물어보셔서 앞으로 간호사가 될 학생들에게 귀한 교훈을 심어주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선교적 삶은 외면과 무관심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을 두면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인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구원받을 영혼들이 보이게 된다. 음식점에 가도, 마켓에 가도, 미용실에 가도, 공원에 가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넘쳐난다.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영혼이 보인다. 생활 자체가 선교의 기회가 된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관심 한 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선교적 삶은 생활방식을 바꾸고 습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이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우리가 살고 사역해야 할 현장은 이 세상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회는 나오나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

떤 사람들은 세상을 적대시하고 피하여 철저히 세상에 배척한다. 교회생활에만 안주하고 교인 외에는 만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없다. 심지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도외시킬 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셋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는다. 말씀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간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 그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을 변화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의 선교적 실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 안의 삶은 물론 교회 밖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전도 행위를 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중재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웃과 교류하고 그 이웃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R.A. 토레이 목사는 "성경 번역 중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번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교적 삶은 독립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다음 호에 계속)

참고자료

• Everts, Don, Go and Do: Becoming a Missional Christian. IVP, 2012

• Guder, Darrell L ed., Inagrace T. Dietterich, Lois Barrett, George R. Hunsberger, Alan J. Roxburgh, and Craig Van Gel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Scheller, Christine A., What Does It Mean to Live a Missional Life? www.thehighcalling.org/leadership/what-does-it-mean-live-missional-life#.VDZ2wxZh2B

☞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사역 담당 김재덕 목사

지난 7월 가정사역 담당 교역자로 부임한 김재덕牧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두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가정사역원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온종일 일하신 후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가정 사역은 많은 인원이 소수 인원을 섬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요?

유학을 온 이듬해인 2001년부터 주말에 이 지역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기 전에 학교의 제안에 따라 주중에는 풀타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상담을 전공하게 되셨는지요?

충신대학원 1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상담학을 접하게 되었는데, 학기가 끝날 무렵 교수님께서 스터디 그룹 참여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소양이 배어 있는 목사님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유학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담당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리버티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티 신학교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유학을 왔는데 역시 미국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전공을 살려 피아노 개인 교습을 조금씩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지향하시는 게 있으셨는지요?

최근 들어 상담의 효용성에 대해 맹신하는 것을 보는데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은 교회 사역의 한 부분일 뿐이고, 이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상황과 시점에서 이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게 하면서 상담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상담 경과는 어떤지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일례로 우울증을 감기처럼 잠깐 겪는 분들도 오시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문화 탓인지 기본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몹시 꺼리시고, 첫 상담을 받으신 후에 두 번째 상담에 오지 않는 no-show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 전화나 이메일(jaeduk.kim@kcpc.org)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지 파악해서 저와 사역자들이 그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첫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의 신앙이나 상담 내용 등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시간씩 네 번까지 대면 상담을 하면서 고민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평소 목회자로서 롤 모델로 삼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작년 12월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신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실명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일반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경기도 성남의 맏인촌이라 불리는 곳에 가서 개척하셨고 그곳에서 40년 넘게 섬기셨습니다. 관계 기관에 요청해서 시각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장애인들은 정착 지원금을 술값으로 다 날리고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면서 가장 죄송했던 게 손주들과 살가운 시간을 보내게 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하시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성도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시각이 정상 이신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미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뒤를 이어 목회하려 하신 건 아니기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에 놀랄 뿐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신지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불드심 이로다'라는 말씀인데 이는 믿는 사람이 어떤 역경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불드심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학 생활 중에도 그랬고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 아빠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명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빠'이고, 상담자로서 가정의 평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성도님들의 어려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아이에게는 항상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담/이문선

☞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의 열정과 감사가 늘 새로운 김영선 전도사



방들이 촘촘히 이어지는 복도 한쪽에 자리 잡은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시니어 순의 조직표가 빼곡히 붙어있는 아담한 공간에서 김영선 전도사가 환한 웃음으로 맞는다. 시원시원하고 활기찬 목소리, 첫인상부터 벌써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감이 온다.

반갑습니다. 새로 시니어 사역을 맡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니 어떠세요?

작년 6월부터 이미 교회에 출석했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중앙장로교회를 찾아왔죠. 전 사실 18년 만에 다시 이민을 온 거예요. 83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 와 애난데일에 살면서 중앙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부를 거쳐 청년부 때 정말 뜨거웠지요. 정강현 목사님을 비롯한 그때 함께 믿음생활 하던 분 중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되었어요. 이원상 목사님은 참으로 사람을 키우는 분이셨어요.

새로 오셔서 아직 교회에 낯선 것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80년대 후반, 그 전설의 세대라니! 청년부 시절 함께 신앙생활하던 추억, 대학 캠퍼스에서의 CCC 활동, 사영리 전도, 단기선교, 기독교 한울 합창단 활동 등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의 표정에는 청년 시절의 젊은 피가 다시 솟아올랐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 믿게 되셨나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열심히 제게 전도를 했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틈틈이 시간만 나면 무슨

시꺼먼 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나 싶어서 몰래 한번 들춰봤는데, 바로 성경책이더라고요. 이민 와서 학교에 있는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우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고민을 하다가 무작정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던 중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 앞에 바로 꿰어앉아 혼자서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학과 신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어린이 사역에 뛰어들었다. 전도와 선교, 어린이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그가 갑자기 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게 되었을까?

한국에는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대학과 신학교 석사를 마쳤고 어린이 사역으로 섬기다가 한국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갔다가 바로 CCC 간사로 활동하던 남편(정승욱 집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 둘 다 오랫동안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난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좋아져서, 지금도 아주 신혼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어린이, 유년부에서 협동전도사로서 섬겼고, 또 영어 사역을 통해 다민족을 섬기기도 했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지요. 한국에서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되었나요?

미국에 다시 오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신앙의 기초를 깊이 내린 가운데 폭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자라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필리핀으로 보내시더군요. 필리핀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도우면서 동남아와 중국이 선교로 뜨거워지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항상 모델교회로 기억하고 있던 천정 교회에 다시 나와 섬기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우시는지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만고만한 딸 셋(한나, 수아, 하연)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남편이 평소에 늘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해 주고 사지

선다로 성경 퀴즈 놀이도 종종 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자랐어요. 가정예배도 드리고요. 또, 어려서부터 교회 사역에 아이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도왔지요. 지금도 각자 다 교회에서 신나게 봉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 부문에 헌신해온 그가 섰 시니어 사역을 맡았다. 상당한 변화이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새로 시니어들을 섬기게 되셨는데, 어떤 느낌으로 사역하시는지요?

글쎄요, 사실은 뜻밖의 사역인데 주시니 일단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어른을 모시는 것은 처음이라 정말 부족해요.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요. 그래도 젊고 예쁜 전도사가 왔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아껴주시지 않을까요? (웃음)

시니어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는지요?

8월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경로잔치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문경수 목사님을 도우며 전체 사역을 파악 중이지요. 우리 교회 시니어가 45개 순으로 모두 1,500명입니다. 전체 회중의 1/3인 셈이지요. 그분들이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와 역할을 마련해드리고 세워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의 팀과 부서가 새로 조직되었고, 기존의 소망회가 6개의 엘림자치회로 다시 구성되었어요. 시니어 센터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시니어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니어 축제 같은 이벤트도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특히 심방 사역을 중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바일 교회라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힘쓰려고 해요. 주로 노인 아파트와 같은 곳을 많이 방문하게 되겠지요. 동역하여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이 많이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정과 감사가 늘 새로운 김영선 전도사, 그의 에너지가 넘쳐흘러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더욱 젊은 마음으로 기쁨과 활력이 있는 삶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대담/유정현



☞ 전도/선교

코러스 한인 축제 기간 전도 부스 설치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센터빌 불런 파크에서 열린 제12회 코러스(KORUS) 한인 축제에 전도 부스를 설치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를 주제로 복음을 전했다. 한 사람 전도팀, 새생명 전도팀, 청년부 선교팀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모인 전도자들은 따가운 햇볕과 더위 속에서도 행사 기간 내내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 제작한 풍선과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특히 동계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청년 2부팀은 이번 축제에서 참석한 한인들에게 시원한 냉커피와 유자차를 판매하며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선교지 사진이 담긴 엽서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렸다.

전도자들은 교회의 지역 참여와 선교적 역할을 위해 지역사회에 교회의 포용적인 모습과 사랑을 보여주고 영적인 갈증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1000여 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특히 이번에 선교사역원, 전도사역원, 커뮤니티사역원, 청년사역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행사 참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귀한 열매를 기대해 본다.

취재/방혜리, 이창열

옥신혜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



선교사로 소명을 가진 동기와 때는 언제였나요?

대학 졸업 후 제 삶의 목적과 동기를 재점검하면서 인생의 최저 시점을 지내고 있을 때 저는 스스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클래스를 마친 후에는 선교지에 나가는 일에 제 마음이 긍정적이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지로 태국을 택한 이유와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

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고 우연한 기회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미술 교사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던 곳이었지만 만 2년을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요?

저의 주요 사역은 태국과 동남아에 선교사로 파견된 345가정의 자녀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수업 외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만난 청소년기 소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해 주시겠어요?

태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가슴이 애통과 연민으로 메어지는 그때 저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 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한 심판 역시 최후의 날에 주님이 하실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 된 자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의 경우 선교사로 불러 주시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특별한 열정도 품은 적이 없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평범한 그 누구라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대담/방혜리



☞ 니카라과 단기선교 간증

니카라과 Sabalos섬마을의 아이들



유설자 집사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로 북쪽에는 온두라스, 남쪽에는 코스타리카, 동쪽은 카리브해 그리고 서쪽은 태평양에 접해있다. 지난 8월 11일 우리 11명은 휴스턴을 거쳐 총 6시간 반 만에 니카라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끝내고 짐을 챙겨 공항 밖으로 나오니 완전 찜통 날씨가. 마치 펄펄 끓는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다. 기다리고 계신 전구 선교사님의 안내로 숙소로 도착한 우리는 곧이어 이민 가방에서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큐티로 마음을 무장하고 간밤에 챙겨놓은 물건들을 싣고 버스로 5시간을 쉼탈로스 부둣가를 향해 달려갔다. 부둣가 도착과 함께 부슬비가 내리고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배는 약속시각을 잊은 듯 보이질 않았다. 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 부둣가의 주민들에게 복음 전도로 열을 올릴 때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쁘고 아름답던지.

1시간 20여 분만에 강가에 우뚝 선 섬마을 숙소로 도착했다. 간판도 없는 자그마한 교회에 어느

새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왔다. 순식간에 비좁도록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의자가 부족해 흠바닥에 앉거나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천진하고 순수하고 모두가 미남 미녀들인지 우린 저마다 아이들 안아주기에 바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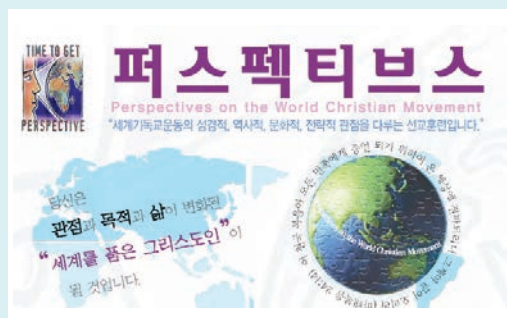
현지인들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은혜 가득한 복된 시간 속에 한없는 기쁨의 샘이 넘친다. 많은 병자가 몰려오는 바람에 침술사역을 하던 최성도 집사님은 온통 땀범벅이 되었으나 잠시도 쉬지 않고 정성 어린 기도로 치료에 임한다. 몰려온 주민들의 머리를 땀벌에서 깎아주는 작업도 기쁨으로 내 가족보다 더 정성을 들였다. 섬마을에서 사진 한 번 찍어본 적이 없는 아이며 어른들이 저마다 사진 찍히기에 열을 올리고 사진들에 끼워준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은 사진 사역에 나선 민도식 집사님의 열정적인 작품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큐브로 팔찌로 쉽게 설명할 때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어찌나 예뻐던지. 가지가지 모양의 풍선 불어주기, 종이 접시로 왕관 만들어 씌워주기,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은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이었다.

섬마을에 있는 네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방문을 하며 많은 교인들에게 닭고기 스프와 밥 그리고 빵과 토피아로 배식할 때 그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느끼며 섬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곳에는 13~16살에 아기를 낳은 어린 엄마들이 많았고, 특히나 다섯 아이를 데리고 온 29세의 한 젊은 엄마는 아이들 아빠가 각기 다르다고 하며 남편 없이 홀로 다섯 아이를 키우며 동네 일을 해주고 살아간다니 성(性)이 문란한 오지 섬마을의 여인들이 얼마나 가엾던지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떠나오기 전날 우리는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위치한 그 나라의 유일한 국립여성암센터를 방문했다. 초췌한 모습의 많은 암환자를 위로하며 예배와 간증 그리고 울동과 찬양을 함께하는 시간 속에 준비해 간 선물을 나눠주니 주르르 눈물을 쏟는다.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아이들과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뿌리고 온 씨앗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100배, 1,000배의 열매 맺는 기쁨이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린다.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를 아십니까?

퍼스펙티브스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전 세계적인 선교훈련으로 197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퍼스펙티브스는 200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만 명이상이 수료하였으며, 특히 워싱턴 지역에서는 올해 2월에 열린문장로교회에 이어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두 번째 개최를 하게 되었다. 와싱턴 퍼스펙티브스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방대식 협동목사는 “퍼스펙티브스는 현 신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키는,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선교교육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퍼스펙티브스는 10월 20일부터 25일 일주일 간 CCPC 다목적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 교재 강의와 튜터의 도움을 통한 연습, 소그룹 토의를 통한 자발적인 복습과 질문지 작성, 영상 시청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10월 24일 오후에는 류웅렬 담임 목사의 선교특강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선교의 교과서이며 교회는 선교의 학교임을 믿고 남은 삶을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길 기대해본다.

취재/윤영권

☞ 사역이야기

“블레싱!!!” 카페운영부

토요일과 주일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담소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부담 없이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얘기하거나 대화를 나눌 공간은 없을까? 이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 주일 2부 예배 후 블레싱 카페에서 두 손으로 믹서기를 사랑스레 몸에 안고 바쁘게 사역하는 카페운영부장 정태석 집사를 만났다.

1. 바쁘신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시던 중이었나요?

음식 소스를 만들려고 하던 중입니다. 블레싱 카페에서는 가능한 한 학생에서 성인까지 모든 교인의 입맛에 맞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준비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2. 어떤 목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나요?

모든 성도와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그룹 미팅과 친목을 위한 교제 모임과 성도 개인의 만남이 쉽고 편하게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교회 내에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성도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나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요일 새벽예배 후 (7:30am~9:00am)와 주일 2부 예배 후(11:30am~4:30pm)에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엔 기도 모임, 제자반 모임, 각 사역부서의 행정 모임과 여러 소그룹 모임 등을 위해서 사전 예약과 함께 필요한 음식을 주문하시면 가능한 것은 준비해 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성도님들의 교제나 각 모임 그리고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에게 만남의 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 시간을 더 확대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주일 1부 예배 후 (9:30am~11:30am)에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확보되고 장비가 보완되면 메뉴도 더 개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른 시간인 오전 7시나 8시에 오픈하여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블레싱 카페의 order형 메뉴와 pre-made형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토요일(7:30am~9:00am)에는 주스, 티, 국산 차, 커피, 물, 소다 등의 음료와 베이컨, 햄, 터키, 소시지 등이 들어간 빵, 피터 버터와 젤리가 들어간 빵, 토스트, 팬 케이크 등이 준비됩니다.

주일(11:30am~4:30pm)에는 티, 국산 차, 스무디, 버블티 및 각종 커피 그리고 떡볶이, 어묵, 우동, 아이스크림 등을 주문하시면 바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일에 직접 살 수 있는 premade 음식은 bottle이나 can drink 종류와 cake, 팔빙수, 손 왕만두, 군고구마 및 감자, 메밀국수, 쿠키 그리고 각종 샌드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bread, meat, tray 등의 음식은 최소한 5일 전에 주문하셔야 준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6. 운영하여 얻은 이익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매일매일 정산을 철저히 하여 모든 수입은 교회 재정으로 입금됩니다. 그 후에 모두 선교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7. 카페운영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성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반가운 질문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하여 12명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보수를 받고 일하시느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하)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의 도움이 블레싱 카페 사역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파트타임 봉사를 하고 있고 오픈 시간 전, 후 1시간 정도 더 봉사해야 하기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좀 더 나은 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현재는 2부 예배 후 (11:30am~1:30pm)에 8분이 봉사 중이지만, 1부와 3부 예배 후에는 한두 분 정도여서 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 바쁠 땐 봉사자의 가족들도 와서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12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가족들을 출동시킨 때도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이 필요한 학생들도 봉사할 수 있고

성인들도 사회봉사 크레딧이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봉사하시면 크레딧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사역하셔야겠지요. 봉사자가 많아야 오픈 시간을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내내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8.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이곳은 일반 가게와는 다르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상냥한 말씨로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가끔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또한, 이용한 후에는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의 쓰레기를 꼭 치우고 마지막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전등도 끄고 가시면 교회의 재정이 절약될 것입니다. 특히 주중에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식 쓰레기를 실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 내내 불쾌한 음식 냄새가 날 수 있고 위생에도 좋지 않거든요. 분위기 좋은 블레싱 카페를 자기 가정처럼 시설을 아끼며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블레싱’하고 ‘블레싱’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며 돌보아 주면 좋겠습니다.

대담/김정기

홍보출판부에서는 이번 호부터 <제자들>에 사역이야기를 실을 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사역 소개 및 개인의 사역을 통한 선교적 삶 등을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각 사역에서 필요한 협조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 관계자나 본인 또는 주변에서 추천하셔서 jeja@kpc.org나 제자들 투고함(다목적실 입구 왼쪽) 또는 홍보출판부 (1155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프라미스랜드 킷오프 & 오픈하우스

프라미스랜드 킷오프



지난 9월 6일 어린이사역원의 2014-2015년 킷오프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어린이사역원의 교사, 자원봉사자, 교역자 3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전체 모임과 오후 1시부터 열린 부서별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프라미스랜드 킷오프와 함께 새 학기를 시작하였다.

어린이사역원 킷오프는 매해 9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열리고 있으며, 사역원의 모든 분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맡겨 주신 생명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복음에 더욱 헌신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 킷오프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회계연도 표어인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신희령 전도사는 참석자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지도하는 어린이들과 좋은 이웃 친구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것을 교사들에게 당부하였다.

체크인과 가벼운 아침 식사로 시작된 킷오프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게임과 라인 댄스로 이어졌다. 2-3학년 교사들이 특별히 준비한 월광댄스와 찬양 후에 신희령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유아부의 정태진, 2-3학년부의 김정호 선생님은 어린이사역원에서 봉사하게 된 과정, 어린이들과의 소통 경험, 소그룹 목양 경험 등을 간증을 통하여 나누었다.

특히, 이날 Rachel Shin, David Whang,

Eric Cha, Mike Hwang, Daniel Park 등 5명의 청년 교사들이 참석자들 앞에서 사회자와 좌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All Stars, JG를 통하여 성장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교사로 봉사하게 된 계기와, 주일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김성아 전도사는 “우리가 하는 어린이 사역의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2세 청년 교사들을 통하여 볼 수 있었으며 매우 큰 격려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한글성경교실을 섬기는 오원주 선생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프라미스랜드의 미래와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배운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기사 제공/어린이사역원



프라미스 출신 선생님들의 좌담회



자랑~~ 우리~~ 신나게 운동해봐!



우리 아이 선생님 누구일까?



K-1 오픈하우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교육

청소년부 킷오프

비전을 나눈 청소년부 킷오프

피터 임 JG 부장

지난 9월 20일 블레싱 카페에서 교역자, 교사, 학부모, 임원 등 70여 명이 함께 킷오프 모임을 가졌다. All Stars, JG, 아가페 등 청소년 각 부서는 각자의 리더십과 임원 그리고 새 회계연도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JG의 시작 모임은 기쁨과 큰 기대로 가득차 있었다. 류웅렬 담임 목사는 교육의 중요성과 영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성장한 젊은 교인들로 그들의 배움과 영적 성장이 다시 교사로 봉사하게 한 것이다.

교회는 다니엘 권목사(Salt & Light, All Stars)와 필립 정 전도사(JG) 등 젊고 열정적인 교역자들에 의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두 교역자는 자기



만의 독특한 스타일, 활력, 열정, 신선한 비전 등으로 청소년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JG 교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임원들이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돌보고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일 예배 전 학생 체크인 과정에 효율성을 더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새 회계

연도 표어인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를 되새겼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지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차세대를 교육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이용해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희생은 마침내 사랑의 노고에 대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이 모임 참석자들은 목회 임원, 학부모, 봉사자들이 마련한 한식 점심에 감사를 표했다.

번역/생강

JG 오픈 하우스

함께 포르세를 만듭시다



지난 9월 28일에 열린 JG 오픈 하우스는 새로 부임한 정상진 (Philip Chung) 전도사 덕분에 활기가 넘쳤다. 정상진 전도사는 앞으로의 JG 사역 방향을 구체적으로 체계있게 설명하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했다. 그는 학생들이 첫째 심도 있는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의 기초를 세우고, 둘째 구체적인 사역을 통한 섬김을 배우며, 셋째 가족 같이 친밀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올해에는 많은 젊은 사역자가 스태프로 참여

하여 JG 사역에 힘을 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기간 청소년 사역에 헌신해 온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익숙한 사역자들을 새로이 학년별 디렉터로 세워 젊은 스태프를 멘토링하며 부모와의 가교 구실을 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청소년 사역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JG 영어권 고등부의 Peter Rim 부장은 부모의 참여를 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 사역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학생들과 스태프,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일한다면 멋진 포르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요소라도 빠진다면 싸구려 자동차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요.”

취재/유정현

2-3학년
오픈하우스



전생담을 소개하는 시간,
우선 제 소개부터~~~



담임 전생담과 부모님의 만남

시니어/교회소식/문화

설립 20돌 맞은 중앙시니어센터

워싱턴지역 한인 시니어들에게 만학(晩學)의 기쁨과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 중앙시니어센터(이사장 류응렬 목사, 디렉터 이해성)의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월 30일 제2예배실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시니어센터의 전신인 노인대학을 시작한 김윤환 초대 총무와 1대 이사장인 이원상 원로 목사, 현 이사장인 류응렬 목사, 새론 린 페어팩스 카운티 노인국 디렉터와 시니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시니어센터의 20돌을 축하했다.

기념예배를 겸한 행사에서는 류응렬 목사의 설교와 이원상 목사의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전한 뒤 사랑으로 노인들을 섬기는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린 카운티 노인국 디렉터는 “비엔나에서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던 시니어센터가 버지니아의 대표적인 시니어센터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중앙시니어센터를 모델로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이 중국과 아랍 출신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환 초대 총무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는데 시니어센터가 생긴 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만한 세월이 지나도록 시니어들을 위해 헌신한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시니어센터가



발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20년의 지난날을 회고했다.

이해성 디렉터는 수백 명의 봉사자가 없었다면 시니어센터의 활동은 불가능했고 빛도 없이 사랑으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20주년 기념 책자에 일일이 소개

했다고 밝혔다. 또,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중앙장로교회와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센터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모든 어르신께도 감사를 전한다며 가장 큰 감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는 시니어들을 섬기는 봉사에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와 함께 점점 노령화되는 한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20년간 시니어센터 발전에 이바지한 이원상 목사, 노창수 목사, 이광수, 조해진, 조순임, 강정국, 엔젤라 심, 최천옥, 한정선에게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권사 중창단, 박정옥, 오영숙, 박귀옥, 채상, 안영균, 이상문, 변만식, 함준길, 장옥경, 신영주, 사재영, 최연홍, 진용특 봉사자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 권사 중창단은 ‘사랑의 열매’라는 노래로,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노래로 중앙시니어센터 20주년을 축하했다.

취재/윤송숙

수고하셨습니다

권형인 전도사 은퇴 감사 예배



지난 9월 28일 주일 오후 4시, 다목적실에서는 권형인 전도사의 은퇴 감사 예배가 있었다. 권형인 전도사는 1989년 5월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25년을 섬겨오다 이번 9월 말로 은

퇴하였다. 권형인 전도사의 가족과 교역자, 그리고 많은 성도가 참석하여 은퇴를 축하하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한 류응렬 담임 목사는 권형인 전도사를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여종이 교회에서 은퇴함을 아쉬워하였다. 한편, 권형인 전도사는 처음 전도사로 헌신할 때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데, 네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다. ‘남들의 결혼 생활이 시들해질 때 자신이 결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말해 참석한 모든 성도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류응렬 담임 목사가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retire)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시간(re-tire)이 될 수 있기를 이날 참석한 모든 성도가 바라며 권형인 전도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최하영

책소개

다른 불

존 맥아더 지음 | 조계광 옮김

생명의 말씀사 펴냄



이 책은 현재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무질서한 은사주의의 허와 실을 파헤쳐 사이비 은사주의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한다. 특히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성경의 증거와 다방면에 걸친 학자들의 글을 토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빠르게 퍼져가는 무분별한

은사주의의 실체를 세밀하게 파헤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성경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다. 거짓 예언, 거짓 기적, 거짓 방언, 영적 위선 등은 가장 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다른 불”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은사주의 운동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원과 방향은 그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에 저자는 거짓 예언자들을 배격하고, 그들의 거짓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리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공경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을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든 진리를 시험하는 유일하고 참된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원서: Strange Fire written by John MacArthur

정리/강혜정

교회소식

은퇴 장로회, 신학생과 선교사 자녀에 장학금 전달



새 회계연도에 당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은퇴 장로회, 신학생과 선교사 자녀에 장학금 전달

그 실행방향중 하나로 장 학제도를 확립해 지난 8 월 말 올해 신학교에 입학 하는 신학생(문다윗, 임수진, 한광훈)과 선교사 자녀(김가은, 박지우, 방에나, 오 저스틴, 지윤창)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당회에서는 앞으로 재학 중인 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장학금은 은퇴 장로회의 후원으로 시작하게 되어 은퇴 장로회의 아름다

운 섬김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취재/최하영

북한 선교 세미나, 벤 토레이 신부

“북한에 복음 전하려면 북한을 알아야”



한국 예수원 대표 벤 토레이 (Ben Torrey) 성 공회 신부가 지난 8월 30일 저녁 제2예배실에서 진행된 북한 선교부 주최 ‘북한 선교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여 북한 선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소개했다. 한국 예수원은 1965년 토레이 신부의 부친인 대천덕 신부에 의해 강원도 태백시 대봉산 자락에 설립됐으며, 북한 개방화

이후를 대비해 선교 인력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에 설립 50주년을 맞는 예수원 홍보차 워싱턴을 방문한 벤 토레이(한국명 대영복) 신부는 “예수원에서는 북한 개방화에 앞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을 연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통일 세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부친인 대천덕 신부가 노환으로 별세했을 때 미국의 기독교 학교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간 그는 북한 주민들의 정신과 문화, 언어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방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식량 원조 모니터팀의 일원으로 2008년 3개월 반 정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토레이 신부는 “북한인이 생각하는 통일은 이상화된 김일성 집안에 의한 통일로 종교적인 개념”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보는 통일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취재/이창열

재밌는 퍼즐 크로스워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가로열쇠>

2. 장로회에서, 교회의 사안에 대해 성도가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
5. 중앙정부와 궁중(宮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물품. (왕상 4:21)
7.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된 것을 없게 하는 화해를 이끄는 사랑. (딤후 2:5)
11.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초목의 열매. (겔47:12)
13. 예배의 중심으로 연설 형식을 가진 것.
15.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인물.

<세로열쇠>

1.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심을 일컫는 말.
3.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 나의 000라고 함. (롬 6:21)
4. 깨달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변화를 받아 과거를 뒤우치고, 미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함. 지적, 도덕적 중생을 의미.
6.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00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 2:2)
8. 하나님이 앉는 자리. (역하 18:18)
9.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중방과 문지방 사이에 있는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잠 8:34)
12.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소경이 눈을 치유한 곳으로 더욱 유명한 연못.
14.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 (마 26:48)

*정답을 쓰신 후 제자들 투고함(다목적실 입구 왼쪽)에 넣어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상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20 상당의 한국식품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감일: 11월 9일

지 난 퍼 즐 정 답	1 말	숨		2 권	단	3 열
	라		4 전	능		왕
	5 기	6 원		7 자	8 살	
		9 죄	10 악		11 마	12 가
	13 하		14 인	15 자		라
	16 만	나		17 선	교	지

당첨자 명단: 김창환 민경희 신현애 이상철 이정희



맛있는 인생

“최고의 맛을 찾는 화려한 손놀림이 시작 된다!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한 요리전쟁. 최고의 맛은 오직 하나!” 지난 2007년 나온 영화 “식객”의 홍보 문구입니다. 영화 “식객”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운암정의 대를 이을 단 한 명의 최고 요리사를 선출하기 위해 음식에 마음을 담는 천재 요리사 ‘성찬’과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이 ‘봉주’가 후계자 자리를 놓고 펼치는 요리 배틀(battle)이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요리 배틀(battle)이 펼쳐지다 보니 영화 “식객”은 서민적인 음식부터 궁중의 화려한 요리들까지 많은 볼거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라면부터 찜 완자 전골, 연계찜, 육회, 십산적, 화양적, 도미면, 황복회 등의 궁중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특히 최고의 요리사를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요리대회 장면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요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화를 보노라면 ‘나도 한번 맛 좀 봤으면...’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음식, 다양한 요리법이 있어 다양한 맛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에 대하여 1916년 Henning이 단맛(sweet), 신맛(sour), 쓴맛(bitter), 짭맛(saline)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매운맛(hot taste)을 더해 다섯 가지 기본 맛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러한 다섯 가지 기본이 되는 맛과 이것들을 혼합한 맛을 통해 우리는 더 풍성하고 다양한 맛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맛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흔히 인생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일 느끼며 사는 다섯 가지 맛 중 단맛은 위장에, 짭맛은 신장에, 매운맛은 대장에, 신맛은 간장에 좋으며 쓴맛은 심장에 좋다고 합니다. 인생도 꿈 같은 시절이 있는 단맛이 있고 아픔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는 진정한 인생의 참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쓴맛도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가 있는 짭맛도 있고 눈물겨운 매운맛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아픔과 설움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맵고 쓰고 짭 인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살맛나는 인생, 맛있는 인생입니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한 시간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맛집으로 전국 각지에서 삼계탕의 참맛을 느껴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맛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살맛나는 인생을 원한다면 이러한 맛을 주는 맛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있는 맛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진정한 맛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셰프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인생으로 요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는 진정한 인생의 참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인생에 쓴맛이 날 때도, 삶에 매운맛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맛있게 요리하여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혼의 참맛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 맛은 바로 구원의 맛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생명의 맛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34편 8절).

제자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15451 Lee Highway
Centreville, VA 20121

전화 (703)815-1200 • 팩스 (703)815-1299

이메일 kmo@kcpc.org
www.kcpc.org



○○ 투고 안내 ○○

제자들에서는 성도님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글들을 투고함,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 편집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하신 글이 편집 방향에 따라 수정되거나 게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기획/취재/교정

강 샘 강혜정 김정기 김신숙 김현주 나동현 방은경 방혜리 양금숙 유정현 윤병도 윤송숙 윤영권 윤은희 이문선 이소정 이숙경 이정화 이창열 정석구 함홍숙

사진: 이재환

디자인: 김민수 김주희 김현준 윤인수 임준우 조해진 한석완

편집: 최하영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9 사영리 전도훈련	20 교역자 가을 Retreat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	21 교역자 가을 Retreat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 청소년 부모교실 III	22 수요강단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 경기 제직회	23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	24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	25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 새가족 환영회
26 영아3 오픈하우스 경기 공동의회	27	28	29 수요강단 새 제직 훈련(1)	30	31 온가족 가을 축제	1
2 Day Light Saving Time 해제 설립 41주년 기념 주일 크리스천 부모교실	3	4	5 수요강단 여와나 개강 새 제직 훈련(2)	6 설립 기념 부흥사경회	7 설립 기념 부흥사경회	8 설립 기념 부흥사경회
9 설립 기념 부흥사경회	10	11	12 수요강단	13	14	15 시니어 일일 부흥회 제자, 사역훈련 기도후원자의 밤
16 영아2 달님반 오픈하우스 유아 세례식, 장년 세례식	17	18	19 수요강단	20	21 Join Youth Worship Night	22 Turkey-ball 경기
23 추수감사주일	24	25	26 수요강단	27 추수감사절 예배	28 부부 캠프	29 부부 캠프